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16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4:15-18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79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7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 없으신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며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사도행전 21:7-1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알고도 피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봉 헌(offering) 1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1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 동정
입원 - 이경자집사님이 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김희상권사님의 결석 제거수술을 위해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사도행전 21:7-14

7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 사도바울이 전도자 빌립에 집에 머물 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또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간곡히 권고한 것은 무엇입니까?(7-12절)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바울에게 어떤 권고를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아가보의 예언과 동역자들의 권고에 사도바울은 어떤 확고한 반응을 보였으며, 결국 동역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마무리 짓습니까?(13-14절) 바울의 반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은 귀한 것이기에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살전 5:20).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말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실 일들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괘나 무당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들이 없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피하려 온갖 정성을 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 설령 그런 일들을 알게 될지라도 단순히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불행하다고 여겨지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힘들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많질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수반되지만, 고통이 끝이 아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